16~27이슈-3 2005.3.16 1:5 PM 페이지16 001 Acrobat™ PDFWriter

경기 회복 조짐 … 실물경제의 '봄'이 오는가

- 내수회복세뚜렷 · 증시활황, 국제유가와환율하락이 변수 -

계절의순환에는어김이없다. 여느해보다도 매서운추위로몸을 움츠리게했던겨울이 지나가고봄이돌아왔다. 계절의순환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기에도 일정한 기간을두고호황과불황이 반복된다. 경제학에서는경기순환이론으로그런현상을설명한다.

400만명에육박했던신용불량자, 네명중한명꼴로일자리를못찾고있는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내수 소비의 기나긴 퇴행, 중소기업들의잇단부도위기등지난2

3년간을특징지웠던불황경기에도마침내회복조짐이나타나고있다.

내수 경기 뚜렷한 회복세로

신용 불량자는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백화점 할인점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내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개인 신용 불량자는 361만 5,361명으로전달에 비해 3만 4,875명(0.96%) 감소하여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지속한것으로나타났다. 2002년 말 263만 5,725명에서 2003년 말에는 372만 31명으로 1년 사이에 108만 4,306명이나 증가함으로써 가계 소비 기반을무너뜨리면서내수침체의가장큰요인으로 작용했던 '신용 불량자 사태'가 마침내해결의길목에들어섰다는얘기이다.

신용불량자사태와함께내수위기의주요지표였던시중은행의가계대출연체문제도해결의고삐가잡히기시작했다. 2%를 훌쩍넘어섰던주요은행들의가계대출연체율이올들어일제히 1%대로내려앉은것이다.

이러한내수기반복구신호는매출부진과자금부족으로빈사상태에빠져있던중소기업들에도회생의젖줄을대주는현상으로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받았던벤처시장이다시꿈틀거리고있고, 매물로나온중소기업들의인수를 타진하는투자상담도늘고있다. 한국은행과중소기업청에따르면지난1월중창업이월간기준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5,000개를 넘어서는등그동안바닥까지내려앉았던' 기업 의욕'도 되살아나고 있다. 1월 중 전국 부도 업체 수도 286개 사로 전달(413개 사)에 비해 127개 사 감소, 2002년 2월(287개 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 징후는 실물 부문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증시 활황, 소비 심리 호전의 기폭제

이처럼경제각부문에서고개를들고있는경기회복조짐에기폭제역할을한것은 단연 주식 시장의 활황이다. 2000년 1월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이후 하락세로 반전, 잠깐씩의반짝 상승 국면을 제외하고는 줄곧 약세를 면치 못했던 주가가 다시 1,000포인트 고지에 올라서면서 대세 상승 행진을이어가고있다.

증시의 힘찬 약진은 지난 몇 년 간의 초(超)저금리기조속에서갈곳을못찾은채 시중을떠돌아다니던뭉칫돈들을증시로끌어들이고, 이로인해 두툼해진고객 예탁금이강력한주식투자수요기반을다지면서 다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선순환 국면이 계속되고있다.

특히, 개인들로부터매달일정한돈을정기적금식으로예치받아주식에투자한뒤 수익금을나눠주는주식형펀드가최근6개월 간 최고 56.11%의 수익률을 기록,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17배나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그동안다수가계의' 안전자산선호'현상에힘입어짭짤한장사를해온은행들을바짝긴장시키고있다. 주가가상승추세로 전환한 작년 9월 이후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이 기간 중 4조 4,000억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증시 활황은 기업들에 주가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제고와함께신규주식발행이나 증자등을통한자금조달을도와주고, 개인 등의투자자들에게는주가상승에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를 일으키면서 소비 심리를 호전시키는 연쇄 작용을 한다는게경제학자들의정설이다.

'봄은 아니지만 大寒은 지난 것 같다'

경기의 본격 회복 국면 진입을 낙관하게 하는요인으로수출의 기대이상 선전도 꼽지않을수없다. 국제유가상승과원 · 달러 환율하락등악재로인해지난몇년간내수불황의 골을상당부분 메워주는역할을 했던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라던 일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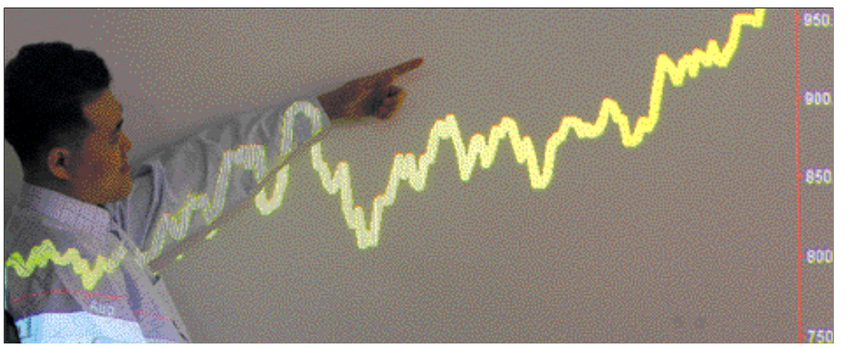
16~27이슈-3 2005.3.16 1:5 PM 페이지17 001 Acrobat™ PDFWriter

에도 불구, 지난 1월 수출은 225억 4,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7% 늘어났다. 덕분에 1월 무역수지도 32억 3,100만 달러 흑자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2월 들어서도 15일까지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3.4% 늘어난 8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이 연말과 연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특별 상여금이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과 은행들이 작년 말 약 3조원의 상여금을 푼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삼성이 1조원을 초과 이익분배금(PS)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 줄잡아 4조 5조원이 직장인들의 손에 쥐어졌고, 해당 직장인들의 이러한 가외 수입은 상당 부분이 몫돈의 소비로 흘러나오면서 내수 회복 무드에 힘을 더욱 실어주었다는 것이다.

부진해질 것이라던 수출이 여전히 건재하고, 지지부진하였던 내수가 회생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 활황 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경기의 회복국면 진입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랜만에 여유 있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물론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경기 회복을 선언하는 데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시중기준금리인 콜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기는 봄은 아니지만 대한(大寒)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책임진 중앙은행 총재로서 경기에 대한 그 정도의 언급은 낙관론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이날 회견에서 "경기지표가 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답변에서 "이번 경기 회복 조짐은 숨이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건설경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 기조에 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가 회생의 길목에 들어섰음을 부인하지는 않은 셈이다.

'불황 탈출'의 콧노래 부르긴 아직 일러

그러나,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지적했듯 이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우려되는 점들도 여전히 많다. 4개월 만에 5달러를 다시 넘어선 국제유가와 세자릿수 하락을 눈앞에 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경기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여건 호전의 기운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도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상황에 이른 다수 중소기업들은 시중 자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운전 자금마저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경영에 마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금융산업에 잠재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기 경보'를 발동한 것은 아직 경제계가 '불황 탈출'의 콧노래를 부르기는 이르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삼성·LG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최근 의일부 경기호전 조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치인 3%대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소비회복 조짐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며, 중산층 이하까지 확대되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등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적정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들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자생력을 이미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 의욕을 꺾는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서 불거진 '노(勞)-노(勞) 갈등', 그로부터 예고된 올 노사 분규의 격랑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오랜만에 찾아온 경기 회복의 봄바람을 살리고, 곳곳에서 지펴지고 있는 경제회생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정부의 '실력 발휘'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CJ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haky@hankyung.com